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하에 결행했고 결국 며칠 만에 10.26이 터졌다. 전두환이 집권하고 노태우까지 이어졌지만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되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실현된다는 평범한 진리.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 각자의 삶이 바쁘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30년 전 감옥갈 때의 그 고뇌와 그 결단이 내 삶의 지향이 되어 살게 되기를 원한다.

자천명(知天命)에 생각하는 유책무(有責務)



양춘승_ 서울대 경제학과 74학번. 우상해운, 지환테크 대표이사(현), 관악민주포럼 회장(현), 한국환경벤처협회 해외사업이사(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던가? 어언 30년이 흘렀다.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도 서서히 사라져간다.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나는 시골의 한 귀퉁이에서 태어나 거기서 중학교를 마치고 운 좋게 광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다. 항상 진학이 아니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나는 다른 친구와 달리 진학을 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제발 가난한 시골에 남지 말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나를 분발시키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렵게 광주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나는 육사에 진학할 요량이었다. 항상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을 존경했던 나는 육사에 가서 무력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천진한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때인 1972년 유신이 선포되고 안면신경마비로 눈이 짝짝이었던 나는 육사에 대한 꿈을 접었다. 유신은 그때까지 내가 알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깨버린 것이었다. 비록 피상적이거나 민주주의란 백성이 주인이라는 나의 상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았다. 대학입시에 바쁘던 나는 유신헌법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울러 육사보다 법대에 가서 가난하고 뺏기는 우리 아버지같은 사람들을 돕자는 생각으로 전향하였다.

다행히 1974년 서울대 입시에서 유신 관련 문제는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 나는 사회계열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대학생활은 처음 생각한 것처럼 그리 희망찬 것이 아니었다.

아무 데도 갈 곳 없는 나는 같은 마을에 살다 서울로 이사간 친구의 집에 일시 기거하기로 했다. 면목동 쪽방이었는데 거기서 돼지를 기르고 살았다. 문간방을 빌어 생활하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다. 없는 돈으로 한 줄 광고를 동아일보에 내고 전화를 기다렸다. 따르릉! 깊은 저녁 주인집 전화벨이 울렸다. 누군가 날 찾고 있는 것이다. “여보세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참 이야기가 진행된 뒤 학생이 물었다. “그런데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라는 나의 대답에 학생은 기어드는 목소리로 “부모님이 전라도는 안 된대요”라며 끊었다.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도 비합리적일 수 있구나 하고 느꼈다.

입학한 지 한달이 지난 1974년 4월 초, 나는 종로서적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서울대 교복차림의 누군가가 나에게 얼마간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본인은 서울공대생인데 내일이면 뭔가 큰 사건이 발표될 거라며 돈을 일주일 뒤 공대앞 무수다방에서 만나 돌려주기로 했다. 주머니를 뒤져 남은 돈을 다 주었다. 그 다음날 민청학련 사건이 발표되었고 나는 그 사람을 영원히 만날 수 없었다. 처음으로 이런 사기도 있구나 하고 느꼈다. (나중에 나는 그 사람이 진짜로 민청 관련자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꿨다)

1학년때 나는 농촌법학회와 한얼, 그리고 불교학생회 3개 서클의 회원이 되었다. 농촌법학회는 현실적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법학도가 되고 싶은 정열 때문에, 한얼은 전통 사상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 불교학생회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웠던 종교에 대한 지적 모색의 일환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 해 가을 학생 데모에 참여한 이후 나는 농촌법학회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아마 10월 어느날이리라. 학교가 술렁대고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1학년이라 설마했던 학생 데모가 현실로 나타났다. 10월 유신과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집회였다. 나도 모르게 데모대열에 합류하였고 사과탄이 날라올 때쯤 나는 어느새 시위대의 선봉에 있었다. 약간 당황했다. 시위대의 중간쯤으로 몸을 뺐다가 경찰과 일진일퇴하다가 도서관으로 농성에 들어

갔다. 농성장에서는 시위의 향방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다. 항상 그러듯이 경찰의 안전귀가 보장을 받고 끝내지는 입장과 농성을 계속하지는 입장이 맞붙고 있었다. 어찌다가 나도 마이크를 잡게 되었다. 나는 시위를 한 이상 뭔가 결말이 나아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기억한다. 어쨌든 우리는 통행금지 시간을 넘지 않게 일단 농성을 풀고 청량리 근처 여관에 투숙한 뒤 아침 일찍 귀가를 보장하며 주동지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청량리역 근처 여관에 투숙하였다. (이 얼마나 순진한 학생인가!) 나는 주동자들 옆방에 머물렀는데 잠이 오겠는가? 나는 주동자 친구 중 한 두명과 내방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옆방에 자던 주동자 친구들이 (내방에 자던 친구들 빼고) 모두 붙들려간 사실을 안 것은 그 다음날 늦은 아침이었다. 경찰의 배신에 분노한 몇몇이 학교로 다시 몰려갔건만 교문에는 ‘휴교’이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처음으로 독재 정권의 공권력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농촌법학회는 당시 1학년만 48명의 회원이 있었고 3개반으로 나뉘어 세미나와 토론을 계속해왔다. 10월 시위 이후에는 이른바 ‘74 서클 연합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는데, 나를 포함하여 정치경제학회의 문성훈과 김삼수, 국제경제학회 김경택 등이 정기적으로 나온 멤버였다. 시골 출신으로 농촌활동은 대학생의 사치라고 주장하던 입장을 버리고 충남 공주 정안면 내문리로 겨울 농촌활동을 떠난 것도 이 해 겨울이었다.

나는 청년반에 권형택과 같이 배속되었다. 열심히 젊은 농사꾼들을 만나 농촌현실과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한 기억이 난다. 그런데 겨울이라 농사일은 거의 없었고 눈이라도 오면 주로 골방에서 하릴없이 시간을 매우곤 했는데 그놈의 막걸리가 문제였다. 외딴 집에 사는 한 젊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의 어머니가 내주시는 막걸리를 마시고 그만 저녁 평가시간에 실수를 한 것이었다. 이 덕분에 우리 전 활동대원은 공동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추운 밤 밖에서 서로를 몽둥이로 달구는 체벌을 받아야 했다. (그 당시 대장은 이범영 형이었는데 새삼 먼저 가신 형의 명복을 빈다.) 처음으로 규율이 우리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았다. 이후 77년 감옥에 가기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 나는 농촌활동에 참여하였다.

1975년은 처음부터 어수선했다. 관악으로 이사간 우리는 덩그러니 회색빛 건물이 가득한 병영같은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았건만 크고 작은 시위는 계속되었다. 4월 시위 때 고 김상진

형의 분신이 있었고, 우리 학회 법대대의원 의장이었던 오용석 형이 군대로 가고 긴급조치의 발동, 구속, 징집이 이어지다가 5월 13일 드디어 유신의 결정판인 '긴급조치9호'가 선포되었다. 긴급조치9호는 일체의 유신에 대한 찬반 토론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을 한 자는 거의 반공법에 준하는 처벌을 강제하였다. 아마 민주라는 탈을 쓰고 그런 '조치'를 취한 나라는 박정희의 대한민국이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이다.

정부는 아마도 9호의 선포로 이 나라가 조용해질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22일, 서울 사대생을 중심으로 이른바 '5.22 시위'가 터졌다. 나는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아 그 깊은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정부는 한방 먹은 꼴이 되었고 이후 학생들에 대한 감시는 훨씬 집요하고 강해졌다.

내가 겪은 일화 하나. 당시 중앙정보부에서는 세 명의 요원을 서울대에 상주시킨 걸로 기억하는데 그 중 이모 씨가 가장 악명이 높았다. 어느 날 학생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학본부에서 보자는 것이다. 뭐가 하고 가는데 예감이 이상해서 몇몇 친구들에게 긴급히 연락하여 식당에 대기시키고 본부 건물로 갔다. 거기엔 뜻밖에 이모 요원이 앉아 있었다. 곤혹스런 감정을 감추며 차분하게 응대하려고 했다. 그는 나에게 관해 꼬치꼬치 물었다.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등등... 적당히 행정고시 공부나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짜증이 났다. 드디어 끝내고 나오려는데 뭔가 손에 집어주었다. 돈이었다. 2천5백원. 얼굴이 발개져 뛰쳐나와 모여 있는 친구들에게 갔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 돈으로 술을 마시기로 합의했다. 그날 마지막은 김경택의 하숙방으로 갔는데 실제 3천원쯤 썼다. 손해본 장사지만 술은 거나하게 취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돈에는 이름표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에도 한번 더 돈을 주려 했지만 그때는 그의 면상에 돈을 날려버리고 말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 후 이모 씨와는 내가 1982년 광명시에 살 때 통화하였다. 그때 도움을 주겠다고 전화할 때 빨리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설치해 주었다. 대단한 특혜를 입은 셈이다.)

이렇게 1975년은 무기력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해 가을, 사실은 미수에 그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젠 불어도 괜찮겠지?) 나는 대림동에서 민인기 형과 자취를 하던 시절인데, 10월인가 지금 교사로 있는 조창환과 또 다른 친구 세 명이 유인물 배포를 계획했다. 그러나 디-데이 당일 아침 자취방 다락에 숨겨둔 유인물과 등사기가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다. 지금

도 미스테리다. 다만 또 다른 친구가 겁을 먹고 치우지 않았나 추정할 뿐이다.

그 즈음 중앙정보부의 공작은 치열했다. 서클마다 몇 명씩 짝어 남산 중정으로 불러 소위 프락치 교육을 시켰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던 자취방에 찾아와 아들이 위험한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등, 연탄을 사주겠다는 등 하면서 회유하려 든 적이 있다. 나는 어머니께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이니 믿지 마시라"고 하고 앞으로 절대 만나지 말라고 부탁한 기억이 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1976년 여름, 나는 김창우의 데모 제의를 받고 즉석에서 동의하였다. 자세한 과정은 <뉴스메이커>에 나와 있으니 생략하겠다. 다만 평소 '정치적 자유보다는 사회적 평등이 실질적인 자유의 내용이다'라고 믿고 사회운동을 겨냥하며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내가 왜 즉석에서 동의했는지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당시 이 나라는 너무나 짓눌린 세상이었다. 5·22이후 질식해 가는 우리나라에 나는 내일의 10톤 산소보다 오늘의 100g 산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같은 행동을 취할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시위는 10분도 안 되어 진압되었고, 오히려 구속된 후 재판장에서 우리 할 말을 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우리 재판에는 많은 친구와 선후배들이 방청하였고 학교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오히려 많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이제 30년이 지나 돌이켜보며 그 많은 고민과 갈등, 그렇게 나온 조그만 행동으로 점철된 나의 젊은 시절이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연결될 것인지 생각해본다. 내 나이 50이면 이제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는다. 내가 살아오면서 보여준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이 사회의 현재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겠는가? 정권을 담당했던 재야에 있건 나이 50은 이제 '지천명(知天命)'을 넘어 '유책무(有責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긴급조치 세대는 결코 '잊혀진 세대'일 수 없다. 오히려 근본부터 다시 고민하며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우리의 보배덩어리여야 한다고 믿는다.